

더불어 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5. 3. 13.(목) 18:00	배포일시	2025. 3. 13.(목) 10:00 배포 즉시
위원장	김병기(천주교), 김병주(불교), 송기현(개신교), 이용선(총괄)	담당자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이용선 · 송기현 위원장,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회 현장 격려 “연대와 기도가 더욱 소중한 때”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송기현 국회의원, 극우와 회개·사회 통합 메시지에 공감
- 한국교회 극우화를 막고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 민생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종교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

□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선·송기현)가 오는 3월 13일(목)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교회관 사순절 릴레이금식기도회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용선 위원장과 송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이 참석해, 기도회 관계자 및 참가자들과 직접 만남을 갖고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 이번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회는 한국교회 극우화에 대한 회개와 성찰의 의미를 담아 3월10일부터 사순절이 끝나는 4월 11일까지 NCKK비상시국회의,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한다. 주최측은 현재 80여개 단체와 교회가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

□ 종교특별위원회 송기현 위원장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금식기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화합과 존중의 길을 찾고 있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가 다시 정상화 하는데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민생을 더욱 돌보고 앞으로도 협력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용선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연대와 기도가 더욱 소중하다.”라며 “릴레이금식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도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는 이번 방문에서 기도회 주최 측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도회의 취지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는 종교계와의 소통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출범했다. 지난 3월 6일 열린 출범식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상호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종교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당 관계자는 “다양한 종교계와의 협력을 토대로, 종교 간 상호이해와 존중을 넘어 서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